

경북도 “정치 상황에도 APEC 정상회의 역대 최고로 만들 것”

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필수예산 1716억 확보해 추진 중
숙박시설 정비 등 추가 예산 필요

어지러운 중앙정치 상황으로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정상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경북도는 “역대 최고 행사로 만들겠다”며 세부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적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도는 지난 13일 경주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APEC 기획단, 경북도 공공의료과, 경주시보건소, 경북 소방본부 등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준비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응급의료대책반 구성 운영(3개반 7팀) ▲D-100 일째 응급의료지원단 발족 ▲정상회의장 및 행사장 일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량,



저스틴 트뤼도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있다.

수송 헬기 지원 등 신속한 이송 체계 방안 ▲숙소별 전담병원 매칭 ▲인근 상급종합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초안에 지방정부가 실행방안을 추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방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이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경북도는 이번 ‘의료분야’를 시작

으로 다른 분야도 지방 중심의 계획으로 차질 없이 수립해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정상회의장, 미디어 센터 등 시설 공사에 예비비를 투입해 사전 설계를 하고 국비 확보 직후 바로 공사가 가능토록 한 바 있다.

특히 경북도는 이미 APEC 개최에 필수적인 예산 1716억원을 확보하고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마련돼 행사 추진에

는 별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확보된 2025년 APEC 국비로는 ▲행사운영비 577억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 ▲주차시설 보강 39억원 ▲미디어센터 건립 66억원 ▲전시장 및 만찬장 등 행사장 조성 186억원 ▲K-콘텐츠 페스티벌 35억 ▲경주국제포럼 15억원 ▲글로벌문화혁신포럼 8억 등이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추가 예산으로는 ▲숙박시설 정비 100억 ▲정상회의장 진입로 확포장 304억 ▲야간시설 경관정비 25억원 ▲행사장 야간 경관 개선 125억원 ▲주변 관광지 경관 개선 100억원 ▲APEC 문화동행 축제 50억원 등이 필요하다.

이철우 지사는 “좋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하듯, 지방정부 중심의 모범적이고 몰생 틈 없는 준비가 행사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지방과 중앙이 잘 협력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역대 최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창군

기업 투자유치 평가 ‘우수기관’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 군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올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노력도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9개 지표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투자유치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올 6월 까지였다. 고창군은 해당기간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스마트물류센터) 소유권 이전과 용평리조트 토지 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동김해나들목~식만분기점 연결

부산시는 16일 동김해나들목(IC)~식만분기점(JCT) 간 광역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부의장, 강서구청장, 김해시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도로는 동김해나들목(김해시 어방동)과 식만분기점(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며, 총길이 4.6km의 교량 연결로 5곳, 교차로 2곳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897억원(국비 444, 시비 453)이 투입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경남도는 지난 13일 2025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섬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운임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을 지원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20만 8000명에게 운임을 지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

동해중부선 개통 관광상품 개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강원관광재단과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31일 개통하는 동해중부선은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이어진다. 전체 거리는 166.3km, 소요 시간은 1시간30분이다.

김남일 공사 사장과 최성현 재단 대표이사 등은 이날 삼척의 이사부도독기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관광객 증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부산지역 청년 10명 중 2명 “다른 지역 이주 계획 있어”

3.1만명 대상 부산사회조사 결과 이주 이유로 구직·취업·직장 끝

부산 지역 청년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고, 그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구직·취업·직장’ 때문이라고 답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부산시 거주 15세 이상 3만 1144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밝혔다.

1996년 1회 조사 시작으로 올해 29회를 맞은 부산사회조사는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실시됐으며, 시민 의식과 생활 수준 및 실태, 사회변화상을 알 수 있는 조사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청년층(15~39세)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년 10명 중 2명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이주 이유는 ‘구직, 취업, 직장’이 66.5%(2022년 대비 5.0%p ↑)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부산의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46%(2022년 대비 0.7%p ↑), ‘불안하다’ 10.3%(2022년 대비 0.4%p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시의 안전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다’ 61.3%(2022년 대비 2.5%p ↑), ‘불안하다’ 4.6%(2022년 대비 0.6%p ↑)로 나타났으며, 시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안전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사업’(44.8%)과 ‘범죄·폭력 예방 사업’(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목포시, 내년부터 새로운 공영버스 운영

노선 전면개편, 시내버스 공영화 등

목포시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공영버스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공론화와 시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노선체계 전면 개편, 노선 공영화, 공영버스 직영사업 및 위탁사업 전환, 공영 인프라 확충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준비하고 있다.

우선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노선체계 전면개편과 6월 미세조정 등을 거쳐 노선 개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개편 노선의 주요 특징은 운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넓은 길 중심의 경로를 설정하고 직선화하여 기존 20개 노선(시내 13개, 시계의 7개), 137대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하여 2025년부터 공영버스체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를 15개 노선(시내 8개, 시계의 8개), 128대로 효율화한 것이다.

한편, 시는 노선개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고, 1개의 직영사업자(직영 공영제)와 3개의 위탁사업자(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경쟁하는 공영버스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전국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및 평가를 추진해 금호이스프레스(주), 마창여객(주), ㈜신흥운수 3개 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김해시, 수출의 탑·유공자 정부포상 수상

관내 기업 38곳, 임직원 19명 선정

김해시는 ‘제6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관내 수출기업 38개사와 임직원 19명이 수출의 탑과 수출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역의 날 기념 행사는 지난 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매년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김해시는 수출의 탑 38개사, 수출유공자 19명을 배출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수립했다.

7000만불탑은 케이디에이, 2천만불탑은 제일전자공업, 명성금속, 정아정밀 3개사가 수상했으며 1000만불은 두원하이стил, 템스코, 영케미칼, 에이치앤에스티, 에스아이씨, SC IS P 6개사가 차지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서는 19명이 수상했다.

홍태용 시장은 “해외 시장 개척에 도전하고 수출 성과를 낸 기업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내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또 다른 도전의 한 해가 되겠지만 큰 힘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3346억 확보

전년비 2797억 늘어… ‘역대 최대’

국회가 지난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경주시가 국·도비 1조 3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정부 예산 대비 2797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도비 확보는 APEC 정상회의 예산 반영의 결과로, 총 3246억

원 규모 APEC 예산 가운데 국·도비로 229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정상회의장 조성 및 리모델링 137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